

1000만 앞으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역주행이 남긴 교훈

거대자본보다 강한 '영화의 힘'...한국영화가 가야할 길

"20대, 팬덤 그리고 입소문!"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 CJ CGV가 분석한 지난해 영화시장의 굵은 흐름이다. CGV는 지난해 12월 영화산업 미디어포럼에서 10월 자사 회원 108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한국 영화산업이 "20대와 팬덤, 입소문"의 힘에 기댔다고 설명했다. 그룹 퀸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그 뚜렷한 증거가 된다. 입소문의 확산과 그에 힘입은 20~30대 중심의 폭발은 관객층, 그들의 감성에 다가간 마케팅 전략 등이 어우러져 '보렙 열풍'을 이끌어내며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영화를 무려 네 번이나 봤다는 20대 대학생의 시선은 이를 방증한다. 한국 음악영화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 속에서 향후 가능성도 내다본다.

싱얼롱 상영관과 반복관람 '강한 팬덤'
스크린 811개서 최대 1300개로 확대
팬덤 만드는 건 자본 아닌 영화의 힘
대작 연연 한국영화계에 신선한 충격

'보헤미안 랩소디' 박스오피스 순위 변동 추이



사실 20대는 영화의 주 관객층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지만 지난해 그 비중은 더욱 커졌다. CGV는 "2013년 18%에서 지난해 22%로 늘었다"고 밝혔다. '팬덤'은 특정 영화를 재관람하는 등 관람 문화를 주도했고, 입소문 역시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며 초반 인지도가 낮았던 작품을 장기 흥행작 목록에 올려놓았다.

● '영화의 힘'

'보헤미안 랩소디'는 지난해 영화산업의 이 같은 흐름을 제대로 입증한 작품이 됐다. 영화는 지난해 10월31일 개봉하면서 한국영화 '완벽한 타인'에 뒤져 박스오피스 2위로 출발했다. 그룹 퀸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만 알려진 영화는 20여일 만에 1위에 오르며 박스오피스 '역주행'했다. 강력한 입소문이 그 힘이었다. 팝음악 세대인 40~50대 등 중장년층의 초반 관람 행렬은 이내 20~30대 등 젊은층을 이끌었다. 이들은 다양한 콘텐츠의 배경음악으로 쓰인 노래를 영화로 재확인하

며 퀸의 존재를 제대로 알게 됐다. CGV리서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6일까지 '보헤미안 랩소디'의 20~30대 관객은 5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영화를 보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싱얼롱' 관람 문화로 이어졌다. 한 영화 홍보마케터는 "싱얼롱 상영관과 반복관람을 뜻하는 'N차 관람' 등으로 영화 관람 패턴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CGV에 따르면 '보헤미안 랩소디'의 재관람률은 8%로, 웬만한 흥행작의 수준을 뛰어넘으며 '팬덤'을 이뤘다. 이승원 CGV 마케팅 담당은 "싱얼롱 상영관과 스크린X 등의 객석점유율이 일반상영관의 2배였다"고 분석했다.

'보헤미안 랩소디'와 나란히 개봉한 '완벽한 타인'의 성공 역시 시사하는 바 크다. '완벽한 타인'은 순제작비 38억원 규모에 '보헤미안 랩소디'와 함께 극장가 비수기인 늦가을 개봉했지만, 신선한 기획과 탄탄한 구성, 배우들의 호연과 감독의 연출 감각 등이 어우러지며 530만 관객을 동원했다. '보헤미안 랩소디'의 홍보마케터가 영화인의 신유형 대표는 "영화만 좋으면 비수기

개봉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켰다"고 말했다.

● '한국영화, 이제 다시'

나아가 두 편의 영화가 과시한 힘은 향후 한국 영화시장의 흐름을 뒤바꿀 작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관계자들은 기대감 섞인 전망을 내놓는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주요 외화들의 흥행 추이와 두 영화의 행보를 비교하면 이런 기대감은 더욱 커진다.

첫 1000만 외화였던 2009년 '아바타'는 극장가 성수기인 12월17일 600여개 스크린에서 개봉했다. 당시로써는 작지 않은 규모였다. 개봉 19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지난해 4월 '어벤져스:인피니티 워'는 무려 2460개 스크린에서 선보였다. 2015년 흥행작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도 개봉 초반 1700여개 스크린을 확보했다. 이처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는 물론 한국영화 기대작은 개봉 초반 특히 첫 주말 스크린 장악을 통해 대규모 몰입공세에 기대 흥행 가도를 달렸다.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을 계열사로 둔 대기업 투자배급사의 영화가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모으는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보헤미안 랩소디'는 811개, '완벽한 타인' 1081개 스크린에서 관객을 만났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이후 1위에 오른 11월19일을 기점으로 최대 1300여개 스크린으로 상영 공간을 확대하는 힘을 발휘했다. 영화의 힘과 관객이 이끌어낸 성과였다.

그만큼 관객의 감성에 다가가는 기획과 스토리, 이를 대중적으로 드러내 보일 홍보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 추석과 연말 연시 개봉한 한국영화 기대작의 잇단 대중적 실패는 새해 한국영화계에 새로운 각성의 기회를 안겨주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한 영화관계자는 "대규모 자본에 기대거나 톱스타급 배우와 감독의 힘만으로 관객을 움직일 수 없게 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향후 한국영화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보헤미안 랩소디'같은 한국형 음악영화는 없나?

'음악과 영화'의 융합 아직은 미숙
조용필·김광석 소재 영화 나올수도

'월스' '라라랜드' '맘마미아' '위플래시' '레미제라블' '비긴 어게인'... 최근 10년 사이 한국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은 음악영화 혹은 뮤지컬영화의 목록이다. 사랑과 혁명과 우정과 꿈을 노래하며 적지 않은 관객의 감성에 다가간 작품들이다. 하지만 목록 안에 한국영화는 없다. 한국영화는 연간 1억명이 넘는 관객을 불러 모으며 다양한 장르와 스토리로 관객의 지지를 얻어왔지만, 유독 음악을 전면에 내세운 음악영화와 뮤지컬영화는 아직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뮤지컬영화 '헤드윅'을 수입하고, '라디오스타' '즐거운 인생' '변산' 등을 연출하며 음악을 스토리의 중요한 바탕으로 삼았던 이준의 감독은 "음

악영화는 음악과 영화를 융합하는 것인데, 우리 아직 그것에 미숙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악과 영화의 세련된 조화, 드라마 작법, 연출 감각 등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부연했다.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지난 '건축학개론'으로 1990년대 인기곡인 그룹 전담회의 '기억의 습작'을 환기시킨 제작사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도 "본격적인 음악영화 제작에 대한 시도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심 대표는 "그동안 음악영화 혹은 뮤지컬영화의 완성도가 낮았던 것도 사실이다"면서 "조용필, 들국화, 김광석 등 폭넓은 대중성을 확보한 음악적 자신이 풍부해 이야기의 완성도를 갖춘다면 충분히 소구할 수 있는 장르이다"면서 향후 대중적 정서를 갖춘 한국 음악영화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보헤미안 랩소디'가 싱얼롱 상영 등을 통해 입증한 것처럼 음악적 감성을 생생히 전달할 수 있는 첨단 음향시설을 갖춘 상영관이 늘어나 "음악영화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여수 기자

몸이 들썩이고 따라부르고...그렇게 4번을 봤다

20대 대학생이 본 '보렙'

그룹 퀸 그리고 그들의 존재감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그룹명은 '여왕'이지만 남성밴드라는 걸 영화를 보고 알았을 정도였으니. 하지만 노래는 광고나 방송 프로그램의 배경음악으로 익숙했다. 퀸에 대해서 부모님이 더 잘 알고 계셨다. 처음 영화를 보러 간 건 부모님과 함께 보기 좋은 영화라는 생각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기대 이상이었다. '퀸을 모를 순 있어도 노래를 모를 순 없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영화 내내 어디서 들어본 듯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극중 '위 윌 록 유(We Will Rock You)' 탄생 뒷이야기를 그린 장면에서는 절로 들썩이는 몸을 억누르느라 애를 써야 했다. 영화의 절정인 '라이브 에이드' 장면에선 그야말로 완전히 압도당했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 손에 땀이 났다.

영화를 본 뒤 계속 퀸의 음악만 들었다. 유튜브로 퀸의 영상도 찾아보았다. 콘서트를 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그러다 '싱얼롱 상영관'을 가게 되었다. 영화관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건 아직 어색한 일이었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객석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섬바디 투 러브(Somebody to Love)'가 흘러나오자 모든 관객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콘서트에서나 들을 수 있는 '피칭'은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다. '라이브 에이드' 장면에서는 모든 관객이 기립하는 장관이 펼쳐졌다. 싱얼롱 버전을 본 뒤 노래를 들으면 오히려 심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빠져 들었다. 그 이후로도 두 번이나 더 싱얼롱 상영관을 찾았다. 퀸의 음악이야말로 관객을 때로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이를 즐길 수 있도록 끌어놓은 '팬'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실감하고 있다.
유은지 인턴기자(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연예뉴스 HOT 4

배우 정유안 성추행 혐의로 조사 받아

연기자 정유안(20)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는 10일 "정유안이 한 여성에 대한 신체 접촉과 관련해 지난주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안은 최근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향후 활동에도 비상이 걸렸다. 출연 예정이었던 tvN 드라마 '사이코메트리 그녀석'에서 하차하기로 했다. 정유안은 2015년 광고 모델로 데뷔, KBS 2TV '7일의 왕비'와 MBC '이리와 안아줘' 등에 출연했다.

현빈-손예진 동반여행설에 '사실무근'

10일 배우 현빈과 손예진이 미국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다는 소문이 휩쓸었다. 하지만 이들의 소속사 측은 "동반여행설은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앞서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두 사람이 미국 LA에서 여행 중이라는 목격담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누리꾼은 "이들이 한 식당에서 부모님과 식사하는 모습을 봤다"고 글을 올렸다. 손예진의 소속사 관계자는 "여행 중인 것은 맞지만 현빈과 함께 간 건 아니다"고 말했다. 현빈의 소속사 측도 "해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출국했지만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영화 '협상'에서 호흡을 맞췄다.

방탄 'DNA' 뮤비 유튜브 6억건 돌파

그룹 방탄소년단이 또 하나의 기록을 갖게 됐다. 10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DNA' 뮤직비디오가 9일 오후 7시18분 기준 유튜브 조회수 6억건을 돌파했다. 한국 그룹 가운데 처음이다. 이미 방탄소년단은 다수의 최다 조회수 뮤직비디오를 지니고 있다. '불타오르네' '쩨어' '페이크 러브' '마이크 드롭' 리믹스 버전 등 4편이 4억뷰를 기록했다. '피 땀 눈물' '세이브 미' '아이돌' 등은 3억, '낫 투데이' '상남자' '봄날' 등은 2억, '데이지' '아이 니드 유' '호르몬 전쟁' '하루만' 등 4편은 1억건을 각각 넘어섰다.

이수만,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참석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19'에 참석했다. 이 프로듀서는 10일(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진행 중인 행사에서 5G, AI, 로봇 등이 가져올 미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 관계자들과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손진호 로봇선연연구소장과 만남에서는 스타와 로봇과의 협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함께 참석한 김영민 총괄사장은 "음악 등 콘텐츠를 잘 활용해 미래 엔터테인먼트를 만드는 것이 한국이 가장 앞서서 할 수 있는 일이다"고 밝혔다.